

치 사

오늘 '통일시대의 준비 - 국민적 지혜를 모으기 위한 대 토론회'는 지난 정전60주년 행사 이후 불교계에서 꾸준히 진행시켜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담론의 연장선이자 불교적 가치 아래 난관에 봉착해 있는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망하여 관련한 국가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갈등과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 상황 아래에서는 이미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며, 인종과 문화, 민족과 종교, 국가체제나 사상의 차이 등 그 무엇도 결코 전쟁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번영과 안전을 위해서는 공동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팽창주의와 군사주의의 폭력성을 직시하고 자비심으로 원용화합 해야 합니다.

금년은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자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가파른 경제성장에 비해 시민의식은 더불어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 사회는 아직 이념의 덩어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장 아픈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갈등과 대립의 생산자로 기능하는 한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아무리 국민소득이 증대하고 문화생활을 영위한다 해도 70년간 부모와 형제가 만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며 전쟁의 위기가 상존하니 근본에서는 불행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오는 5월 15일부터 3일 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를 봉행합니다. 전 세계 19개국의 고승과 종교지도자가 대거 내한하여 세계평화의 담론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파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지구촌 전체에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이 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기원대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염원하는 남북화해와 통일이 앞당겨 지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의 탁월한 지혜와 방편이 남북한과 이웃국가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돼서 70년 동안 동아시아에 드리웠던 갈등과 반목의 어두운 먹장구름이 말끔히 걷혀지는 상서로운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와 평화, 화합의 정신을 널리 펼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더욱 더 정진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활동으로 분단 70년의 장막이 걷혀지고 평화, 통일, 번영, 화합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4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